

중국 국가 공급망 안정 강화를 위한 대량운송·통합운송·디지털 물류 체계 전환

해당국가	중국	기관(기업)	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송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물류
□ 중국 물류 분야는 국가 공급망 안정성과 대규모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교통물류 네트워크 통합·확대와 대량운송 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							
○ 중국 교통운송부는 2026년 1월 교통물류 비용 절감, 서비스 품질 향상,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행동방안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물류 대량운송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							
- 전국 교통물류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해 거점·노선·노드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대량 화물의 지역 간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물류망 구축을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							
- 핵심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철도·항만·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물류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 단위의 대량 화물 분산·집중 처리 체계 구축 추진							
○ 다식(多式) 통합운송 체계 구축을 통해 철도·도로·수상·항공을 연계하는 대량 운송 구조 강화							
- ‘일팔 운송 문서’와 ‘단일 컨테이너 처리 체계’를 도입하여 복수 운송수단을 거치는 대량 화물의 행정·운영 절차를 단순화하고 대규모 화물 이동의 시간·비용 부담을 절감							
- 다식 통합운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철도-항만-도로-공항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량 화물이 단일 플랫폼에서 계획·추적·관리되는 통합 운송 구조 구축							
□ 디지털·지능화 물류 전환을 통해 대량운송 운영체계의 데이터 기반 관리와 공급망 연계 효율을 동시에 강화							
○ 중국 교통부는 수요예측, 운송경로 최적화, 화물 흐름 관리 등 물류 운영 전반을 디지털·지능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량운송 체계의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핵심 정책 방향 제시							
- 빅데이터·클라우드 기반 물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량 화물의 이동 경로·처리 속도·적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, 국가 차원의 물류 운영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							
- AI 기반 수요예측 및 운송계획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생산량 변화에 따른 대량 화물 수송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, 물류 자원 배분과 노선 운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구조 마련							
○ 물류와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강화하여 단순 운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대량운송이 산업 가치사슬 전체를 지원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정책 방향 설정							
- 제조업·에너지·농산물 등 주요 산업 공급망과 교통물류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유통까지 대량 화물 흐름을 하나의 통합 체계로 관리하는 공급망-물류 융합 구조 추진							
- 국가 종합 화물 허브를 중심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대량운송 운영 모델을 실증하고, 디지털 물류 플랫폼 기반의 대규모 화물 처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							

※ 출처 : 중화인민공화국 교통운송부(2026.01.28), 《加快培育交通物流领军企业 提升产业链供应链服务保障能力行动方案》政策解读